

한글 TeX 사용자 모임과 한국텍학회의 빛나는 순간들

Progress

2008년 9월 23일

차례

1	한글 TeX 사용자 모임 활동 시작	2
2	DVIPDFMx 개발	3
3	LUG에 등록되다	4
4	KTUG FAQ 위키 서비스 시작	5
5	TUG 2003 컨퍼런스 참석	6
6	은글꼴 트루타입폰트 공개	7
7	HPack 프로젝트	9
8	KTUG Collection 시리즈	11
8.1	KC 2005	11
8.2	KC 2006	12
8.3	KC 2007	12
8.4	KC 2008	13
9	kaTeX 제작	16
10	한국텍학회의 설립	17
11	맺으며	20

1 한글 TeX 사용자 모임 활동 시작

한글 TeX 사용자 모임(KTUG; The Korean TeX Users Group)은 2001년 11월 8일 홈페이지 www.ktug.or.kr에서 첫 게시판의 문을 열면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게시판 이곳저곳과 FAQ 위키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국내에서 TeX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는 조진환 선생님의 'ChoF's TeX Archive'와 도은이아빠로 알려진 김강수 선생님의 '도은이네집' 정확히는 '사회과학도를 위한 (La)TeX/PDF'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박원규 선생님이 가칭 '한글 L^ATeX 메일링 서비스'를 만들자는 제안을 김강수 선생님께 전달하자 김강수 선생님은 그러면 'KTUG Mailing List' 정도가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KLDP의 권순선 선생님의 지원에 힘입어 메일링 리스트가 개설되었습니다. 메일링 리스트가 시작되자마자 논의되었던 것은 L^ATeX으로 한글 트루타입폰트를 임베딩한 pdf를 생성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그때 막 WinEdt의 사자머리를 두드려 에러 없이 컴파일되면 환호성을 지르곤 하는 풋내기였으니, 하루가 멀다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메일 '덩어리'를 읽는 것이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뺨 좀 튀겨 말하면 이해되는 단어는 사람 이름과 토씨 정도였다. 고나 할까요. 아무튼지 한글 트루타입폰트를 처리하기 위해 패치된 ttf2tfm을 어떻게 백묵글꼴이 어떻게 enc 파일이 저떻고... 무슨 생각으로 메일링 리스트를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지켜보던 조진환 선생님은 당시 도은이네집과 ChoF 사이트에 중복적으로 올라오는 사용자들의 질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양 게시판을 통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신 뒤 게시판이 통합되었습니다. ChoF와 도은이네집은 폐쇄되지 않고 양쪽 게시판에서 링크를 www.ktug.or.kr으로 걸어둠으로써, KTUG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발을 떼게 됩니다. 거기에 홍석호 선생님의 HPack Project도 KTUG으로 옮겨왔습니다. HPack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처음에 MikTeX 기반의 한글 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TeX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답니다.

그해 12월 21일 신촌의 민들레영토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도현 선생님, 도은이아빠님, 송재훈 선생님, 이근채 선생님, 조진환 선생님, 주철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소를 바꿔 삼겹살도 구워먹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주선한 모임인지라 선물을 좀 준비해야할 듯 싶어서 Alan Hönig의 *TeX Unbound*라는 책을 몇 권 제본하여 가기도 했습니다.¹

KTUG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¹(이 글을 보실 지 모르겠지만) Alan Hönig 교수님! 불법으로 복사하여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저 KTUG 설립에 일조하셨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DVIPDFM_x 개발

KTUG의 첫 모임이 있고 얼마 지난 후 조진환 선생님께서 `dvipdfm-kor` 라는 물건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TeX 에서 pdf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pdf \TeX` 과 `dvipdfm`이었습니다. `pdf \TeX` 은 직접 pdf로 출력해주는 \TeX 엔진입니다. 라틴 문자는 아주 잘 처리했지요. 그러나 폰트 문제 때문에 한, 중, 일 사용자들은 `pdf \TeX` 사용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조진환 선생님의 회고에 의하면, 처음에 `subfont` 기술을 `pdf \TeX` 에 접목하는 패치를 만들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서 `dvipdfm`에서 트루타입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차에 일본의 Shunsaku Hirata 씨가 만든 `dvipdfm-jpn`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dvipdfm-kor`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dvipdfm-kor`를 이용하면 한글 트루타입폰트가 들어간 pdf를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두 물건이 합쳐져 `dvipdfm-cjk`라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었고, 지금은 이름을 완전히 바꿔 `DVIPDFMx`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DVIPDFMx`는 `Mik \TeX` 과 `\TeX Live`에도 들어있을 뿐더러 `hyperref` 같은 패키지에도 옵션을 등장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당시에 동아시아권에 사는 사람들이 트루타입폰트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사실상 `DVIPDFMx`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pdf \TeX` 으로도 가능하긴 했지만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했다는군요.

저는 조진환 선생님이 발표하신 `DVIPDFMx`를 KTUG 역사 중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한글 트루타입폰트가 들어간 책도 만들어보고 마스터 인쇄에서 오프셋 인쇄로 품질을 전환하는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LUG에 등록되다

LUG란 Local User Group의 약자입니다. 전 세계 TeX 사용자 모임은 ‘텍’(TUG; The TeX Users Group) 이고요, 텍 홈페이지에 국가별 TeX 사용자 모임 현황이 나오는데 그곳에 ‘kr’이 등록된 것이지요. 2008년 9월 18일 현재 LUG에 등록된 나라는 서른 군데에 불과합니다. KTUG이 LUG에 등록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소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kr: Korea (South)

short name: KTS or KTUG

full name: Korean TeX Society

language: korean

members: 200

email: infoatmail.ktug.or.kr

web site: www.ktug.or.kr

address: Department of Law,
Dongguk University
26, 3-ga, Pil-dong
Chung-gu
Seoul 100-715
Republic of Korea

Periodical:

title: The Asian Journal of TeX

editor: Jin-Hwan Cho

editor email: chofchof@ktug.or.kr

President:

name: In-Sung Cho

address: Dept. of Economics,
Kongju National University
182 Shinkwan Dong
Gongju 314-701
Korea

email: ischo@ktug.or.kr

phone: +82-41-850-8439

fax: +82-41-850-8440

Secretary:

name: Kangsoo Kim

email: karnes@ktug.or.kr

Treasurer:

name: Dohyun Kim

address: Department of Law,
Dongguk University
26, 3-ga, Pil-dong
Chung-gu
Seoul 100-715
Republic of Korea

email: nomos@ktug.or.kr

phone: +82-2-2260-3257

4 KTUG FAQ 위키 서비스 시작

2003년 3월 말, 박원규 선생님께서 애써주신 끝에 KTUG FAQ 위키(wiki)가 탄생하였습니다. 위키는 당시 웹에서 유행하던 엔진(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으로 외부 링크는 물론 내부 링크도 탁월하고, 순차적 자료의 백업과 업데이트가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 작업하는 데 아주 좋다는 것이죠. 페이지의 수정과 보완이 쉬우니까요. 인터넷 위키백과사전(www.wikipedia.org)이 대표적인 위키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 한 페이지를 읽는 도중 나오는 어려운 단어는 쉽게 검색이나 이동이 가능하여 찾아볼 수 있지요.

그동안 KTUG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물어오는 질문을 모아 FAQ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html 문법과 조금 달라 처음에는 자료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거는 것이 무척 어려웠지만, TeX을 배우는 것에 비하면 좀 쉬웠다고나 할까요. 주로 김강수 선생님께서 자료 입력과 수정을 많이 하셨고요, 박원규 선생님은 KTUG 게시판에서 FAQ 위키로 쉽게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KTUG 게시판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이미 쌓아둔 자료 페이지로 링크를 걸면 되니까요. 특히 학위 논문 집중 시기가 다가오면 (사석에서 김강수 선생님과 ‘시즌’이라고 부르곤 했던) 올라오는 단골 질문은...

- 그림을 한 줄에 두 개씩 넣고 싶어요, 줄 간격을 두 배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 장 번호는 로마 숫자, 절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 교수님이 쪽 번호를 위쪽에 넣으래요.
- 띠어림이나 데피니션 번호를 절마다 새로 시작되게 하고 싶어요 등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문서 레이아웃 페이지를 꾸미는 데 조금 시간을 들였고, 홍석호 선생님이 패키징해주셨던 NTEmacs에 대한 설명을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가 없었던 저는 이곳에 이따금 음악을 소개하기도 하고 태어난 아이의 사진도 올리고 사사로운 얘기들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다소 건조했던 KTUG 게시판보다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가볍게 글을 입력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2005년 12월께부터 FAQ 위키는 개인 블로그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저 자기 필명(nickname)을 지닌 한 페이지와 그 하부 페이지를 지원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일기장처럼 낱짜 개념이 담긴 블로그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아직까지도 블로그와 위키의 차이를 잘 모르겠으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유행하던 블로그 개념이 위키에서도 쉽게 적용되는 걸 보니 블로그도 위키의 한 종류려니 생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5 TUG 2003 컨퍼런스 참석

TUG 2003: the Silver Anniversary – 25 years! – of TeX

The 24th Annual Meeting and Conference of the TeX Users Group
tug2003@tug.org

Themes

- Resurgence of TeX & L^AT_EX
- pdfTeX, ConTeXt, Metapost, Metafont
- TeX-XML Symbiosis, T_EI, Digital Archiving
- Fonts & Graphics
- Installations & Management, CTAN
- Publisher & Prepress Dilemmas
- MacOS X TeX: New Kid on the Block

Important Dates

2002		2003	
Abstracts due	18 Nov	First draft of paper due	9 Feb
Abstracts accepted	18 Dec	Registration deadline	9 Apr
Early-lion registration	31 Dec	Final paper due	9 Jun

Links

Homepage	http://www.tug.org/tug2003/
News Mailing List	http://www.tug.org/tug2003/news/
TeX Heritage	http://www.tug.org/tug2003/heritage/
Call for Abstracts	http://www.tug.org/tug2003/callfor.html
Registration/Donations	https://www.tug.org/tug2003/registration.html



TeX Enthusiasts worldwide are invited to join us for a grand reunion to celebrate the accomplishments of TeX
Polish up the old and learn about the shiny new directions in TeX!

July 20-24, 2003, Outrigger Waikoloa Beach Resort, Big Island, Hawaii
[Kona International Airport at Keahole (KOA)]

그림 1: TUG 2003 포스터와 프로그램

2003년 7월 하순에 조진환 선생님이 하와이에서 열린 TUG 2003 컨퍼런스에 KTUG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DVIPDFMx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이제 2년 정도 된 한국의 TeX 사용자 모임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와이 TUG 2003은 TeX 탄생 25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컨퍼런스였으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진환 선생님께서 FAQ 위키에 **꼼꼼한** 후기를 남겨두었으니 궁금한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당시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진환 선생님은 그 후 중국 우한에서 열린 TUG에도 참석하셨습니다. 몇 년도였는지 기억나지 않는군요.

6 은글꼴 트루타입폰트 공개

2002년에 박원규 선생님께서 $\text{H}\text{E}\text{T}\text{E}\text{X}$ 의 개발자 은광희님이 만든 UHC Type1 폰트를 트루타입폰트로 변환하는 은글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UHC Type1 폰트는 $\text{H}\text{E}\text{T}\text{E}\text{X}$ 에 포함된 폰트입니다만, 이를 트루타입폰트로 변환할 경우 많은 운영 체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폰트 한 벌을 얻게 되는 셈이지요. KTUG뿐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피드백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글꼴’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UHC는 Unified Hangul Code의 줄인 말로 UHC 코드를 모두 커버하는 글꼴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인데, 박원규 선생님이

UHC 글꼴 자체는 UHC 코드에 얽매이는 글꼴이 아니기 때문에 ttf의 글꼴 이름을 맨 앞에 ‘Un’이라는 접두사를 써서 UHC의 의미를 Un’s Hangul Composite 글꼴의 줄인 말로 삼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하고 은광희 선생님께서 양해해주셔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2008년 8월, 박원규 선생님은 은글꼴 1.0을 발표합니다. $\text{H}\text{E}\text{T}\text{E}\text{X}$ 에 들어있던 19벌의 한글글꼴을 트루타입폰트로 변환한 것이지요. 각 폰트에 들어있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하였는데, 글리프(glyph)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기도 하고 기호문자의 수직위치를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 UHC 폰트는 Type1 폰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자소 글꼴이었습니다. 이를 실제의 문자에 대응 시키기 위해서는 vf를 통하여 자소 조합을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UHC를 임베딩한 pdf는 텍스트 추출이나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글꼴 트루타입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사라집니다.
- 그리고 통상적으로 완성형 2,350자만을 지니고 있던 다른 많은 한글 글꼴에 비해 은글꼴은 11,172자 모두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한글 표기에 쓰이지 않는 다른 많은 글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이가 한국어 문규정의 표준어 규정에 맞게 글을 쓰면 11,172자가 필요 없이 2,350자만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뒤집어서 그 어떤이가 바로 국립국어원의 연구원이고, 마침 틀린 표기와 바른 표기를 대비하는 책을 만든다고 칩시다.

커피샷 → 커피숍
연구 및 개발 → 연구 및 개발

11,172자가 없는 글꼴을 쓴다면 ‘샷’ 같은 표현할 수 없는 글꼴 때문에 당장 애를 먹겠지요. 예전에 이호재 선생님은 ‘떡’ 소리도 표기할 수 없다고 보고하셨지요.

- 외부에서 그래픽 작업을 할 경우, 그림 속의 폰트와 본문의 폰트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트루타입폰트는 대부분의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니까요.
- 글꼴 라이선스는 GPL입니다. GPL(General Public Licence)이란 일반에게 공개된 라이선스로 배포와 재배포가 가능하고 개발자가 자유로이 수정과 변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로 인해 개악의 소지보다는 개선의 소지가 더 많겠지요.

이 밖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7 HPack 프로젝트

2004년 12월에 홍석호 선생님께서 HPack 1.2를 발표합니다. MikTeX 2.3 버전에 H_ATeX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이들은 H_ATeX을 MikTeX에 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TeX 시스템 설치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관건이었습니다. 'TeX은 설치가 반'이라는 얘기도 나오곤 했거든요. 아무튼지 그에 드는 수고와 시간이 줄어들었으니 사용자가 얼마나 편했겠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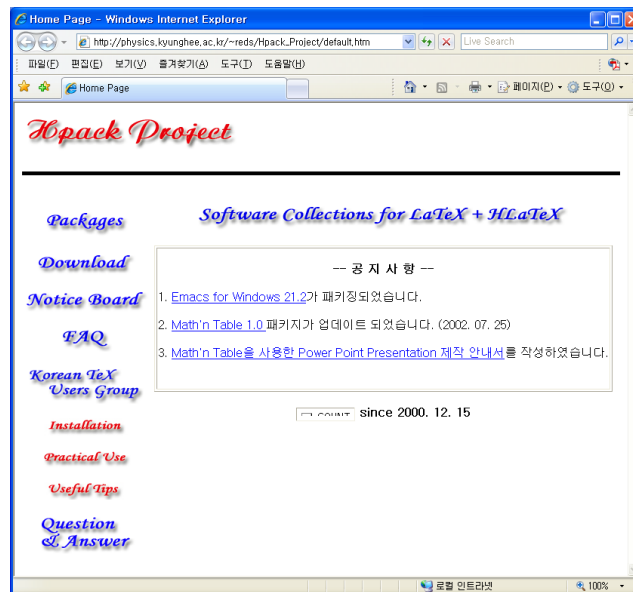


그림 2: HPack 프로젝트 홈페이지

또 HPack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유용한 에디터와 유틸리티도 제공하였습니다. Emacs for Windows를 몇 가지 설정과 함께 묶어 놓았는데요, ispell과 AucTeX이 기본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WinEdt을 포기하고 이 에디터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Math 'N Table이라는 수식과 표 미리보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사용자가 특정 수식이나 표를 미리 컴파일해보고 본문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유틸리티입니다. 이로 인해 본문 전체를 컴파일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매우 편리했지요.

HPack은 발전을 거듭하여 나중에 언급할 Hangul-ucs를 설치하는 옵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ygwin+teTeX 환경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2008년 1월 공주대학교에서 열렸던 Asian TeX Conference 2008에서 일본의 유수케 구로키 씨가 "Japanese TeX Environment for Cygwin"이라는 발표문에서 Cygwin 환경과 일본의 ptetex을 결합하는 손쉬운 설치법을 소개한 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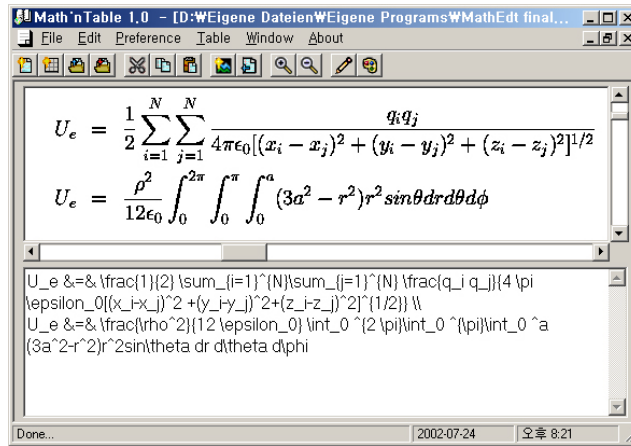


그림 3: Math 'N Table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몇 년 앞선 시도가 있었던 셈이지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HPack은 MikTeX 기반의 KTUG Collection 2005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8 KTUG Collection 시리즈

KTUG 컬렉션 (줄여서 KC)은 특정 TeX 배포판에 한글 환경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만의 고유한 TeX 배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 KC 2005가 배포된 이래 2008년 9월 현재 KC 2008 베타판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수 많은 발전을 거쳤는데 운이 좋아 그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8.1 KC 2005

KC 2005는 MikTeX 기반에 H_ATeX 0.991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KC 2005가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광희 선생님의 H_ATeX 1.0이 발표됩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KC 2005는 몇 가지 패치를 적용해야했습니다. KC 2005는 발표 전에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사전 예약한 분들께 두툼한 책자와 CD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해외 2만리에 거주하시는 홍석호 선생님과 김강수 선생님께서 이 패키지를 뉘느라 엄청나게 고생하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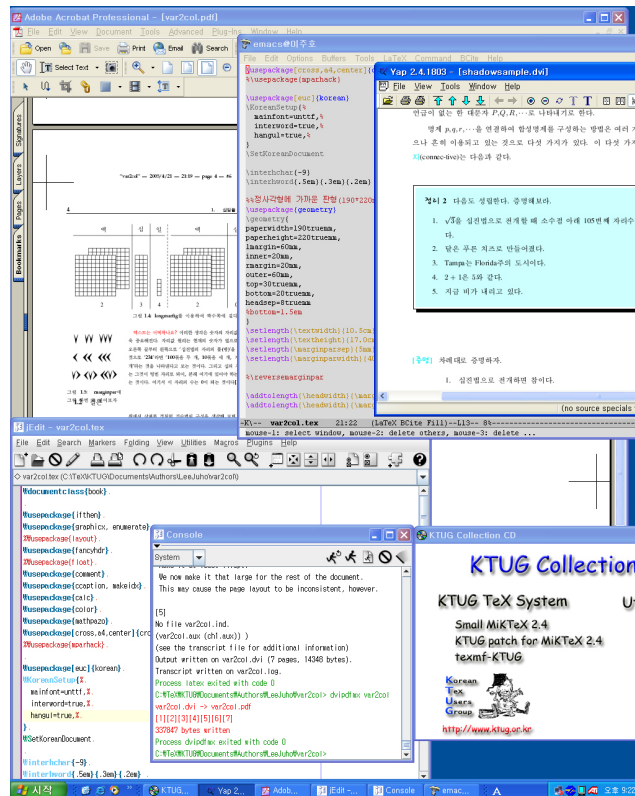


그림 4: KC 2005 사용 스크린 샷



그림 5: KC 2006 CD

8.2 KC 2006

KC 2006은 MikTeX을 버리고 W32TeX/ko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MikTeX을 포기하는 데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연과 배경을 게시판을 통해 설명하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기존의 MikTeX 기반의 임플리멘테이션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감출 수 없었는데 옷을 새로 갈아입어야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W32TeX 자체는 일본의 아키라 카쿠토 씨가 만든 TeX 배포판이지만 W32TeX/ko는 조금 다릅니다. 이름만 W32TeX에서 따왔지 오히려 가장 한글TeX다운 이름이었다고나 할까요. 여하튼 그 차이를 저를 비롯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설명하느라 김강수 선생님께서 하루에 1.2리터씩 땀을 쏟으셨습니다.

KC 2006은 Dviout을 기본 dvi 뷰어로 설치하였고 kcmpm이라는 자동 패키지 설치 유틸리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kcmpm은 kcpm으로 바뀌어 KTUG Collection의 패키지 설치 기본 유틸리티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Hangul-ucs를 기본 한글TeX으로 삼았습니다.

8.3 KC 2007

KC 2007 역시 W32TeX/ko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LyX을 잘 지원하고요, 재미난 점은 설치 옵션에 따라 time, esse, raison 버전으로 제공되었다는



그림 6: KC 2007 DVD

첨입니다. KTUG은 KTNG와 아무 관계가 없습디다요.

올해 공주대학교에서 열렸던 Asian TeX conference 2008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DVD 판이 제공되었습니다.

8.4 KC 2008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KC 2008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게시판과 위키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 되풀이하여 언급하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바로 윈도우 환경에서 `synctex`과 `SumatraPDF`를 통하여 PDF Forward/Inverse Search가 가능하게 된 것과, `Notepad++`이라는 기본 에디터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dvi`를 버릴 수 없었던 이유가 주로 이 Forward/Inverse Search 기능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파일 된 화면에서 해당 부분의 소스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 실용적 욕구는 `dvi`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 이제 KC 2008은 pdf 파일을 단지 열고 컴파일해도 됩니다. `SumatraPDF`에서 더블 클릭하면 `Notepad++`로 돌아가고요, `Notepad++`에서 pdf view를 누르면 `SumatraPDF`의 해당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그림 7)

물론 다른 에디터와 `SumatraPDF`를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 * *

`Notepad++`에서 예약 명령어나 함수를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bibliography`이라는 환경을 입력한다고 칩시다. `Ctrl-Space Bar`를 누르고 몇 글자만 치면 예약 함수가 주르륵 나옵니다. (그림 8) 비슷하게 `Ctrl-Enter`를 치면 누르면 ‘단어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블럭을 잡고² `Ctrl-K`를 눌러보세요. 해당 블럭이 모두 주석 처리됩니다. (그림 9) 그 반대의 기능은 `Ctrl-Shift-K`입니다.

²블럭은 마우스로 긁어서도 좋고 `Shift-상하좌우 커서`를 눌러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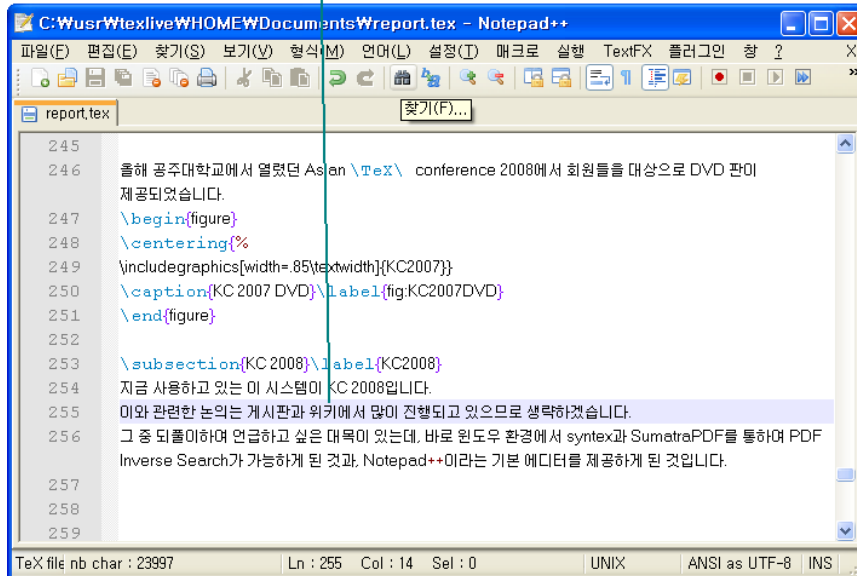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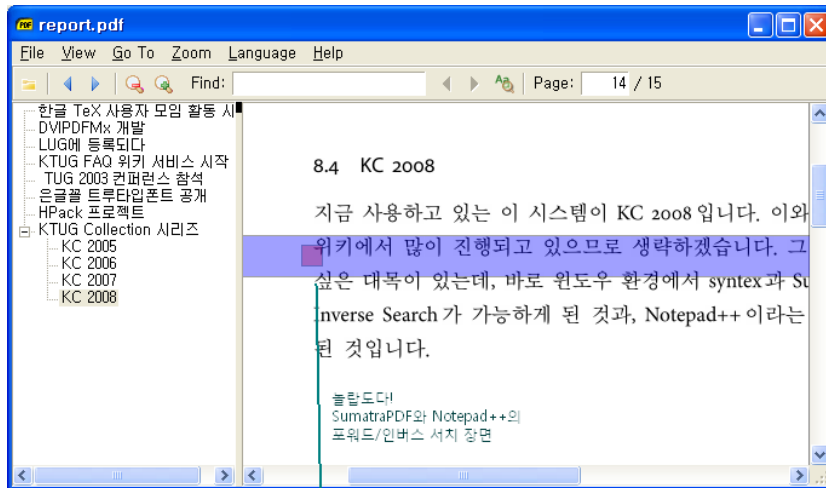


그림 7: SumatraPDF와 Notepad++의 상호 연동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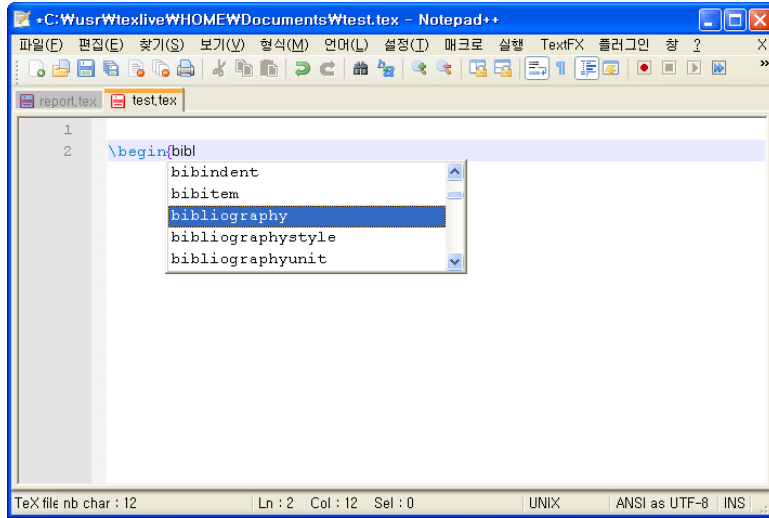


그림 8: Notepad++의 함수 자동 완성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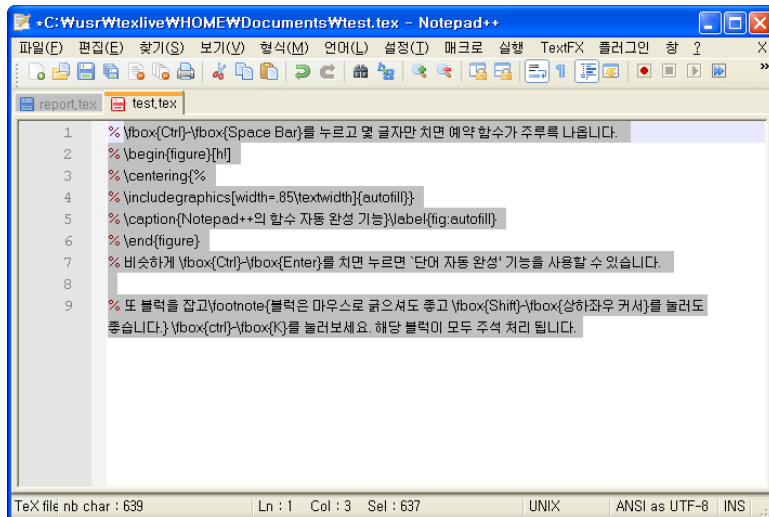


그림 9: Notepad++에서 블록 처리한 부분을 한 방에 주석 처리하기

9 koTeX 제작

2004년부터 Hangul-K와 DHucs가 합쳐져 Hangul-ucs가 만들어졌습니다. H_ATeX 이후 새로운 한글 TeX 매크로 집합이 나온 것이죠.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자동조사와 hyperref 패키지의 충돌이나 soul 패키지와 충돌 같은 굵직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김강수·김도현 선생님)

한편 2005년 4월, 오랫동안 H_ATeX 1.0이 발표됩니다. 이 버전은 유니코드 레이아웃을 잘 지원할 수 있었고 기존 H_ATeX의 소소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각주 이어짜기 등의 기능도 있었어요. (은광희 선생님)

2007년 7월, 이 두 한글 TeX 매크로가 합쳐져 koTeX이 되었습니다. KTUG과 KTS는 기존의 두 한글 환경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최근에 생긴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koTeX에 대해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한글 환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 표준 한글 TeX 환경의 매뉴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쓴 매뉴얼입니다.

<http://project.ktug.or.kr/ko.TeX/kotexguide.pdf>

참, 저는 습관삼아 koTeX을 코텍이라 읽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위 매뉴얼 22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koTeX은 텍스트 상황에서 ko.TeX이라고 쓰고 “케이오텍” 또는 “코리 언 텍”이라고 읽는다. ko는 한국어를 의미하는 국제부호에서 취한 것이다. ko를 소문자로 쓴다.

* * *

정확히는 Hangul-ucs에서 구현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koTeX의 주요 기능이 되어버린 finemath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수식과 한글 사이, 괄호와 한글 사이에 미세한 간격을 넣어 보기 좋게 한다든지, 한글 문장 부호의 수직위치를 조정하거나 이른 바 고아 현상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시절에 책을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0 한국텍학회의 설립

2007년 1월 27일, 고등과학원에서 KTUG 5주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는 'TeX: 조판, 그 이상의 가능성'이었습니다. KTUG의 모든 일들이 경황 없이 이뤄지곤 했지만,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들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포스터, CD, 명찰 등 어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이 힘들게 하더군요. 지금 돌아보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두 차치하고 학술대회 주제 명칭만큼은 이만하면 잘 지은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은 [KTUG 5주년 학술발표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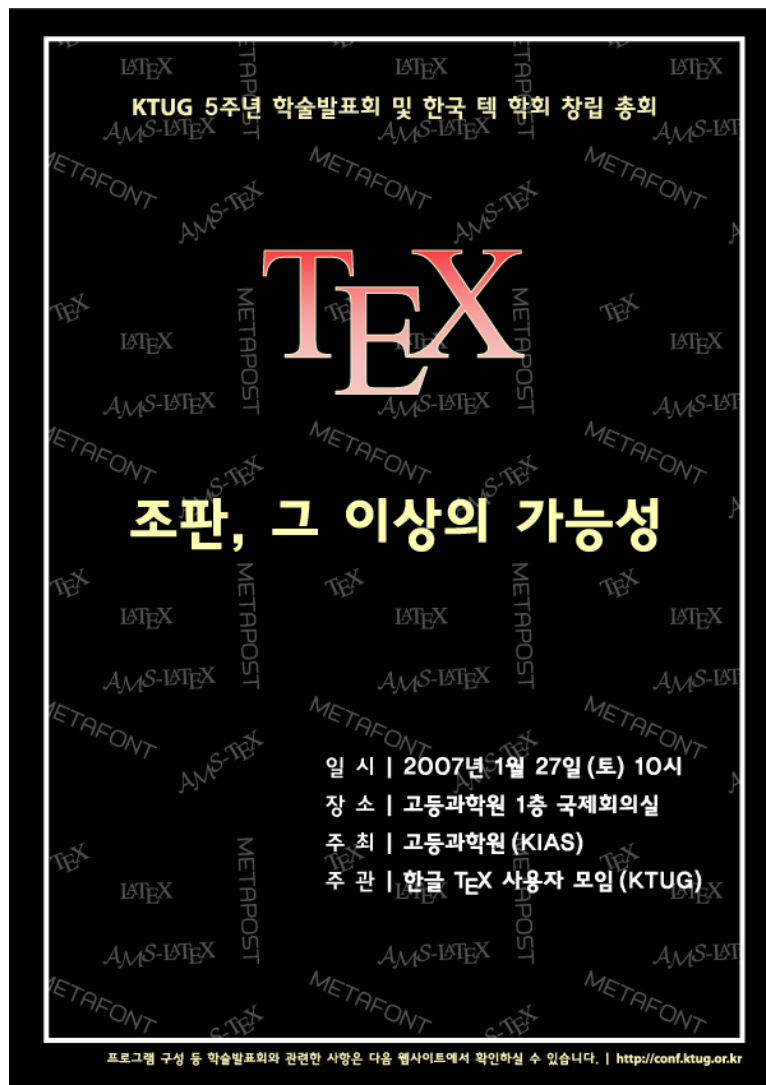


그림 10: KTUG 5주년 학술발표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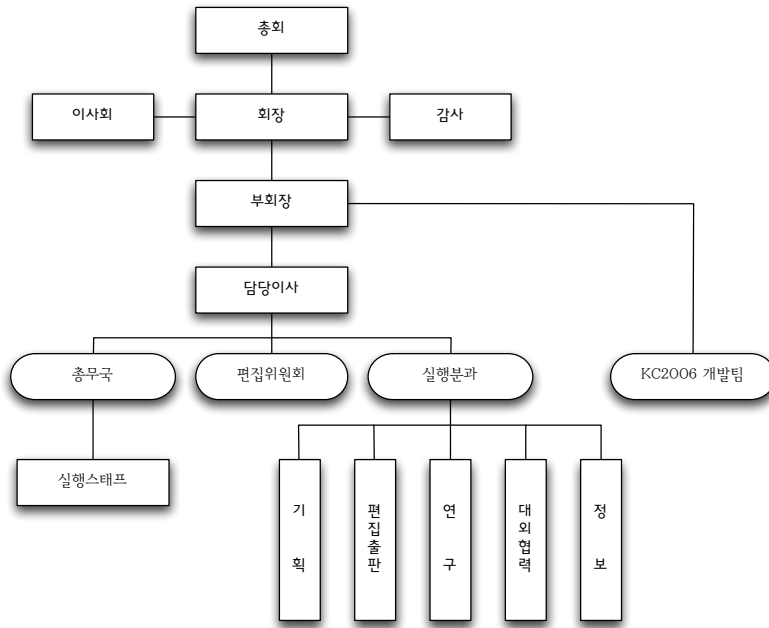


그림 11: KTS 조직도

이때 KTUG을 한 단계 승격하여 학회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지금의 KTUG은 그냥 두고 학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요. 학회 명칭은 한국텍학회(KTS; The Korean TeX Society)로 정했습니다. 2007년 3월 1일부터 조인성 회장님, 김강수 부회장님, 김도현 총무이사님, 조진환 편집이사님, 이기황 대외협력이사님이 임기 2년으로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 * *

2008년 1월 27일, Asian TeX Conference 2008를 조인성 회장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공주대학교에서 무사히 치렀습니다. 유명한 분은 다 오셨더군요. 초청인사와 발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àn Thế Thành](#) PDFTeX 저자

Experience from a Real-world Application of Microtypography with pdfTeX

[Haruhiko Okumura](#) Legend of Japanese TeX World

Japanese TeX—Past, Present, and Future

[Werner Lemberg](#) CJKL^ATeX 저자

Unicode Support in the CJK Package

[Jin-Hwan Cho](#) DVIPDFMX 저자

How to Knock Down TFM, Achilles in the TeX System

TeX in the Age of Digital Humanities

January 25-26, 2008
Kongju National University (KNU),
Republic of Korea

We proudly announce the Asian TeX Conference 2008, the first TeX-related international conference especially organized in Asian context bearing a long tradition of literary culture, to be held in Kongju, Republic of Korea on 25 to 26 January 2008. The general theme of the conference is "TeX in the Age of Digital Humanities" reflecting the increasing roles of TeX and related tools in digital humanities.

The two-day conference is packed with invited talks by world-renowned TeX developers and general presentations with stimulating and informative subjects.

We warmly invite anyone interested in TeX and digital typography to participate in this unique opportunity to share ideas and experiences with other people.

Plenary Speakers

Author of pdfTeX: **Hàn Thê Thành** (Vietnam)
Author of CJK: **Werner Lemberg** (Austria)
Legend of Japanese TeX World: **Haruhiko Okumura** (Japan)
President of Chinese TeX Users Group: **Hong Feng** (China)
Author of DVIPDFM: **Jin-Hwan Cho** (Korea)

General Speakers

Nobuyuki Tsuchimura (Japan)
Jean-Michel Huet (France)
Gernot Hassenpflug (Republic of South Africa)
Yusuke Kuroki (Japan)
Kihwang Lee (Korea)

Hosted by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NU
Organized by the Korean TeX Society and the Department of Economics, KNU

Visit the conference homepage: <http://knu.dong.hang.kr/2008/> for more information.



Asian TeX Conference 2008

텍 과 디지털 인문학의 만남

2008년 1월 25-26일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관 201호

오랜 문화의 전통을 지닌 아시아의 특수한 문맥 속에서 기록된 '텍' 관련 국제학술대회인 Asian TeX Conference 2008의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텍과 디지털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pdfTeX의 개발자인 Hàn Thê Thành과 CJK-TeX의 개발자인 Werner Lemberg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텍' 관련 개발자들의 초청 강연과 다양한 주제의 일반 발표가 준비됩니다.

'텍'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께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Organizing Committee

Jin-Sung Cho (Chair) Kongju National University
Phil-Young Lee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anil Park Kongju National University
Woo-Yang Kim Kongju National University
Gwan-Hae Hwa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Gilho Jo Kongju National University
Kangsoo Kim Korean TeX Society
Myung Chul Cho Korea University

Program Committee

Kwanggho Um (Chair) Myongji University
Dohyeon Kim Dongguk University
Jin-Hwan Cho The University of Suwon
Kihwang Lee Yonsei University

주최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주관 한국텍학회 - 공주대학교 경제학과



그림 12: Asian TeX Conference 2008 포스터

온라인에서나 보던 분들을 실제로 보니 아주 재미나더군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위플랑(?) 부부에게 “오므려, 벌려 (open, close)” 이러면서 젓가락질하는 법을 열심히 가르쳐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하센플루크 씨한테 燒酎로 건배하며, 이 술의 ‘酎’ 자는 그냥 술 酒 자가 아니고 ‘세 번 빛은 술’이란 뜻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실수로 ‘燒’ 자를 ‘세 번 빛은 술’이라 잘못 알려줬습니다. 하센플루크 씨가 계속하여 燒 자를 가리키며 가우똥하며 “three time distilled?” 하고 물어 몇 번이나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미안해요 !)

11 맺으며

지금까지 KTUG과 KTS에 얽힌 제 기억을 더듬어 써봤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운이 좋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비교적 가까워서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의 피와 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KC 2008을 제작하면서 김강수 선생님과 윤석천 선생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燒酎 한 잔 대접하겠다는 것 밖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³

이 글에서 혹시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헛갈려서 그런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문서도 아니고 그냥 붓 가는대로 써봤습니다.

KC 2008의 발표에 따른 베타테스터의 임무는 이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2008년 9월
이주호 드림

³그리고보니 요새 KTUG 모임이 너무 뜸했습니다.

연도별 주요 사건

- 2001 11. 8. 한글 \TeX 사용자 모임 활동 시작 (www.ktug.or.kr)
- 2002 11. DVIPDFMx 개발(조진환)
LUG에 등록되다
lshort-kr, GFAQ, METAPOST 활용 등 사용자 설명서 지원
작업 (계속)
- 2003 3. KTUG FAQ 위키 서비스 시작(박원규)
7. TUG 2003 컨퍼런스 참석 (조진환, DVIPDFMx에 관한 Talk
진행, 세계 무대에서 처음 KTUG 소개)
- 2004 8. 은글꼴 트루타입폰트 공개 (은광희·박원규)
12. HPack 프로젝트(홍석호, Mi \TeX 에서 안정적인 한글 환경
지원)
Hangul-ucs 제작 (김도현·김강수, 유니코드 기반의 한글
환경, DHhangul은 중세 국어를 비롯한 모든 한글 구현)
- 2005 4. KTUG Collection 2005 제작·배포
HE \TeX 1.0.1 발표 (은광희)
- 2006 7--12. KTUG Collection 2006(ver. 1 & 2) 제작·배포
11. 안정적인 faq/ project/ ftp 서버 서비스 개시 (주 다음커뮤
니케이션·주 콘텐츠플러그 후원)
- 2007 1. 27. KTUG 설립 5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한국텍학회의 설립(www.ktug.kr)
7. 20. ko \TeX 발표
8. 29. KTUG Collection 2007 배포
- 2008 1. 25--26. Asian \TeX Conference 2008 개최
1. 26. KTS 제1차 정기총회
- 2008 9. 13. KTUG Collection 2008 배포